

보도시점 2025. 12. 25.(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12. 24.(수)

취·양수장 개선 속도전...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 개선사업 완료로 본격화

- 내년 예산 470억 원 확보... 전국 취·양수장 66곳 개선에도 박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6일자로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대부·중적포·외삼학)의 개선사업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발생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비 133억 원 전액을 합천군에 지원하여 착공 13개월 만에 준공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양수장 3곳은 그동안 취수구가 하천 상층부에 인접해 있어, 갈수기에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 장애가 발생하고 녹조 유입 우려가 커 지역 농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통해 취수구의 위치를 하천 중심부로 이동하고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는 등 극한 가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사업으로 해당 지역은 가뭄·녹조 등 발생에도 중단 없는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과거 잦은 취수 중단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었던 합천군 청덕면 일대 농가들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하루에 5만 2천톤의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당장 내년 영농기부터는 물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은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높인다. 특히 극한 가뭄 등에 취약해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소유 취·양수장 66곳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2026년)에 4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설계와 공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투입되며, 특히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 시설에는 예산과 기술지원을 집중해 조속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 상	70	7	52	1	10
완 료	4	0	3	1	0
진행 중	66	7	49	0	10

이승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이나 녹조 등을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다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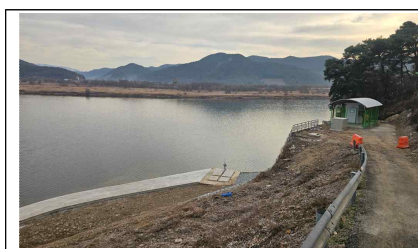
붙임 대부·중적포·외삼학 양수장 개선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 사업개요

대부 양수장	사업위치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337		
	사업기간	'24.12~'25.12	총사업비	3,115백만원
	시설용량	16,675m ³ /일	개선방식	양수장 신설 (취수관거)
	사업내용	취수구 위치 변경(EL.1.5m → EL.0.7m, 0.8m↓) 및 펌프 설치		
중적포 양수장	사업위치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898-1		
	사업기간	'24.12~'25.12	총사업비	5,290백만원
	시설용량	25,920m ³ /일	개선방식	양수장 신설 (집수매거)
	사업내용	취수구 위치 변경(EL.4.1m → EL.-0.1m, 4.2m↓) 및 펌프 설치		
외삼학 양수장	사업위치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308-1		
	사업기간	'24.12~'25.12	총사업비	2,890백만원
	시설용량	9,763m ³ /일	개선방식	양수장 신설 (취수관거)
	사업내용	취수구 위치 변경(EL.4.5m → EL.0.45m, 4.05m↓) 및 펌프 설치		

□ 현장 사진



대부 양수장



중적포 양수장



외삼학 양수장